

경북, 규제개선안 범정부 과제 채택... 지역투자 활성화 청신호

영천경마공원 등 행정절차 단축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구축 등 지원 포함



경북도가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규제개선안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돼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

경북도가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던 규제개선들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돼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현안들을 조사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지원 방안에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정심사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마사회의 3057억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000억원에 달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된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은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바 있으며,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경북도는, 그동안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했고,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의 신속히 착공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됐다.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

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의 예타면제와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6000억원의 투자효과와 2060년 여객 1226만 명(국제 906만 명, 국내 320만 명), 화물 21.8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도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앙 정부에 제안했으며, 입법과제들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도 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00억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100억 원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종기 여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심의위원이 참석해 여수교육지원청과 관내 88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개 분야 46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고등학교 지원(27억 원) ▲지역 우수 인재 육성(18억 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16억 원) ▲교육복지 향상(17억 원) ▲예체능 인성, 적성 함양(13억 원) ▲학교 환경 개선(9억 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우수야영장'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야영장이 '2023 공공 우수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분야에 선정됐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지자체·공공 운영 야영장 599개소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가족(어린이)친화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곳을 선정했다.

선정평가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운영관리, 위생관리 등 30가지 지표의 서류평가와 합동 안전평가 및 캠프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광양(전남)=양수영 기자

상주시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속리산국립공원 주변 4개 시·군(상주, 문경, 보은, 괴산)의 역사와 문화, 생태가 담긴 '속리산둘레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됐다.

상주시는 8일 산림청이 속리산둘레길을 9번째 국가 숲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 숲길은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다.

속리산둘레길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숲길로 그 길이가 무려 208.6km에 이르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완도군

드론 배송 상용화 활용영역 확대

완도군이 장기체공 수직 이착륙(VTOL) 드론 비행 실증 시연회를 지난 9일 가졌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두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모형과 중량, 거리, 비행시간이 업그레이드됐다. 이날 비행체에 1.5kg의 물품을 싣고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까지 총 50km의 거리를 왕복하는 비행 실증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장거리 드론 배송 실증으로 드론 활용 영역 확대와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울산시, 도심공원 대대적 확충 녹지 조성 면적 '30만㎡' 규모

조성 사업비 총 823억 투입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울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원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2023년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삼산쓰레기 매립장 완충녹지 조성사업 △도심생활공원 조성사업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이다. 총 사업비는 823억 원이 투입되며 녹지 조성 면적은 총 30만 4,431㎡ 규모이다.

'삼산쓰레기 매립장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남구 태화강역 일원에 총 사업비 446억 원을 들여 면적 22만 6,

653㎡ 규모의 녹지 및 파크골프장(36~54홀) 조성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체 토지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보상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심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2억 원이 투입되어 중구 무지공원·함월공원, 북구 신천공원, 울주군 선바위공원 등 4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중 함월공원(3,800㎡)은 야생화원과 쉼터정원으로, 선바위공원(3만 8,000㎡)은 사계절 테마정원으로 지난 6월, 12월 각각 조성이 완료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배 증가

366명 배정·고용... 인력난 해소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점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32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10배 넘게 증가한 366명이 배정·고용되면서 농촌 고령화 속 인력난에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던 농가에 그야말로 단비가 됐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내년엔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나주시지역 농가에 투입될 전망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결과 127농가에서 545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올 한 해 농가에 투입됐던 366명의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모습. /나주시

계절근로자 수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예상치인 50~100여명을 합하면 내년 상반기에만 60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농가 일손을 보탬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농가에 316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과수, 시설하우스 등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고흥군, 내년 친환경 양식사업 100억 확보

친환경 새우양식 우량종자 생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인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 130,000㎡ 부지

에 친환경 새우양식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연구 및 창업 귀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새우 종자의 안정적인 관리와 종자 연구 시스템 구축은 물론 스마트 양식 단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청년 어업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경남도,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착공

1단계 금속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경남도가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착공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2020년부터 10년간 4,630억원을 투입하여 총 3단계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20년~2024년까지 '금속소재' 실증연구기반 ▲2단계는 2023년~2028년까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3단계는

2028년~2030년까지 '기능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2012년 창원시와 한국재료연구원의 제2연구소 유치 양해각서 체결로 진해구 여좌동에 연구부지를 확보하였다.

1단계인 금속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은 지난 2020년에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사업'과 2021년에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다.

/경남=이도식 기자